

1	2	3	4	5	6	7	8	9	10
4	1	3	4	3	1	3	4	2	2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	3	1	3	1	3	2	3	4	3

(해설)

2004년 8월 7일 시행 제42회

【해설 1】 정답 : ④

해설 : 동북공정(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작업)의 핵심

중국측 주장	쟁점	우리측반박
중국 한족인 고이(高夷)의 후예	고구려 종족	고조선, 부여와 같은 예맥(濊貊)족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중국황제에게 조공을 바침	조공의 성격	조공은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전근대적 외교 형식
평양 천도 후 고구려는 현재 북한 영토지만 과거 중국의 영토안에 있었으므로 중국사	평양천도 후 고구려사	현재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역사를 중국사로 간주하는 중국의 통일적 다민족국가론과도 모순
변방의 소수민족 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중국 통일 전쟁	수(隋)·당(唐)과의 전쟁	고구려와 중국의 국가간 전쟁
고구려 멸망 후 다수의 지배계층이 중국에 들어와 한(漢)족과 융합됨	유민의 거취	다수가 신라로 가거나 발해 건국에 기여
고구려와 고려는 별개의 국가	고구려와 고려의 연계성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

【해설 2】 정답 : ①

해설 : ②, ③, ④는 조선 후기 농업의 상황에 관한 설명이다.

【해설 3】 정답 : ③

해설 : 『삼국사기』는 본기, 세가, 지, 열전 등으로 구분하는 기전체 역사서이다. ① 그러나 삼국에서 편찬된 역사서는 전하지 않는다. ② 가야의 후손인 사람이 적은 가야의 역사책(『삼국유사』에 적힌 「가락국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책)의 이름이 『개황록(開皇錄)』이다. 비록 조선시대 이전에 쓰여진 것이기는 하나 스스로의 조상에게 ‘황(皇)’이라는 말을 붙였다는 것은 후손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가르쳐 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가야도 삼국과 마찬가지로 스스로를 황제국으로 여겼던 것이다(단, 왕들의 칭호는 ‘왕’이나 ‘태왕’, ‘대왕’이었을 것이다). ④ 사초와 사정기는 1차 사료로서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사료가 된다.

【해설 4】 정답 : ④

해설 : 좌우합작 7원칙(1946. 10. 7)

1.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3상회의 결정에 의한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미·소 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할 것.
3. 토지개혁에 있어서 몰수·유조건 몰수·채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며, 시가지의 기지 및 대건물을 적정 처리하며, 중요산업을 국유화하며, 사회노동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속히 실시하며, 통화 및 민생문제 등을 급속히 처리하며, 민주주의 건국과업 완수에 매진할 것.
4. 친일파·민족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의·결정하여 실시케 할 것.
5. 남북을 통하여 현정권하에 검거된 정치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고 아울러 남북·좌우의 <테러>적 행동을 일체 즉시로 제지토록 노력할 것.
6. 입법기구에 있어서는 일체 그 기능과 구성방법을 본 합작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을 기도할 것.
7. 전국적으로 언론·집회·결사·출판·교통·투표 등 자유를 절대로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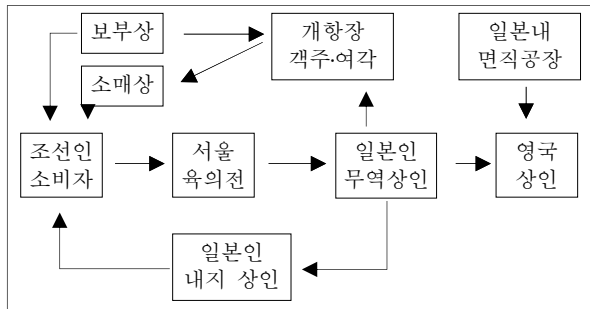
【해설 5】 정답 : ③

해설 : 조선은 일본의 막부 장군이 바뀔 때마다 에도에 통신사를 보내어 환영하였다. 당시 막부 장군은 왜의 최고 통치권자로서 우리나라에는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를 파견하였다. ① 발해는 일본을 통해 신라를 견제하였다. ② 고려는 개국 이래 중

국의 양(梁)·당(唐)·진(晉)·한(漢)·주(周)의 5대조와 국교를 맺었는데, 그 뒤 중국을 통일한 송(宋)나라와도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요나라의 성종은 압록강 하류의 여진(女眞)을 정복하고, 993년에는 고려와 송나라의 관계도 끊기 위해 고려의 영토 서북면에 쳐들어왔다. 이에 고려는 사대의 관계를 송나라로부터 거란(契丹)에 옮겨서 거란 황제의 정령을 받는 대신 압록강 동쪽의 여진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 여진족 완안씨의 아구다[阿骨打]는 요나라에 모반하고 군사를 일으켜 국호를 금(金)이라 정한 뒤, 1116년(예종 11)에 고려에 대하여 형제의 나라로 국교를 맺도록 하였다. 금과의 사대관계는 금나라가 몰락할 때까지 계속되는 한편, 남송과의 교섭도 끊어지지 않았다. ④ 임오군란의 결과 맺어진 상민 수륙무역장정 제1조에는 “조선의 청의 속방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해설 6】 정답 : ①

해설 : 당시 조선과 일본과는 미면 교환체제가 일반적이었다. 즉 일본 무역상에 의해 영국제 면제품을 수입하였고 그 댓가로 조선은 미, 곡류, 인삼 등을 지불하여야 했다.



【해설 7】 정답 : ③

해설 : ① 조선공산당은 결성 당초에는 파벌을 망라하는 당이 되려는 노력을 보이는 한편 ‘정우회선언’을 통해 비타협적 민족부르주아지와의 협동전선을 주장하면서 코민테른의 통일전선노선을 수용하여 민족협동전선으로서의 신간회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1928년의 코민테른 제6차대회는 조선공산당의 승인을 취소된다. ② 1920년대에는 민족유일당 운동인 좌익(사회주의)과 우익(민족주의) 연합을 꾀하는 민족협동전선 운동론이 대두되었다. ③ 1930년대 혁명적 농민조합운동은 1920년대 말에 나타나고 있던 농민 대중의 투쟁을 정치적 혁명적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합법농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노동조합운동도 마찬가지로 맥락의 결과이다. 따라서 신간회의 성립 배경이라기 보다는 활동과정의 결과쯤으로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 ④ 중국의 제1차 국·공합작은 군벌정치, 제2차 국·공합작은 항일투쟁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두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하여 이룬 결과물이다. 한국에서는 신간회나 임시정부 등이 이에 영향을 받고 조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해설 8】 정답 : ④

해설 : 과전법 하에서는 전,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이 모두 분급되었다. 이에 과전의 부족이 있자 세조때 직전법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이 분급되었다.

【해설 9】 정답 : ②

해설 : 민청학련사건은 1974년 일어난 반유신체제운동으로서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에 자극되어 일어난 학생운동을 박정희 정권이 긴급조치 4호를 발표하여 180여명의 학생들을 구속한 사건을 말한다.

【해설 10】 정답 : ②

해설 : 교정도감은 최씨 정권의 최고의 권력기구로서 감찰, 인사, 조세 등을 관장하였다. 도방은 경대승이 설치한 신변보호 사병기구를 확대시킨 것이며 정방과 서방은 최우가 사저에 설치한 문인 인사, 숙위기구이다.

【해설 11】 정답 : ④

해설 : 개화사상에는 실학파들이 주장하였던 실사구시, 부국강병, 이용후생, 통상개국, 제도개혁의 성격들이 개화사상에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개화파는 온건개화파(동도서기론)를 주장했던 세력과 급진개화파(변법자강론)를 주장한 세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온건개화파는 유교 정신과 제도는 유지하면서, 서양의 과학기술만 수용하자는 세력이고 급진개화파는 청국의 변법자강과 같은 부분 개혁 방식을 따르려고 하였다. 전체적으로 개화파는 인간의 평등과 인권 그리고 민권을 강조하여 이성의 해방과 능력본위의 인재 등용이 이루어지고 천부적 인권의 인정으로 평등의식이 고조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개화사상은 실학사상을 계승하여 물질적인 개화만이 아니라 의식적인 개화를 추진하여 유교사회의 가부장적 사회질서를 타파하려고 하였다.

【해설 12】 정답 : ③

해설 : 윤봉길의 상해 특공작전 의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매우 큰 역사적 의의를 가진 독립운동이었다. 첫째, 윤봉

길의 상해의거는 일제의 만보산 사건 조작으로 봉괴된 한국과 중국 양민족의 연대를 다시 회복하여 강화하고, 중국 영토 안에서의 한국민족 독립운동을 다시 가능케 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둘째, 윤봉길의 상해의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침체에서 부활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결정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임시정부와 연결된 윤봉길 특공작전 의거의 커다란 성과에 놀라고 고무된 다수의 국내외 동포들이 임시정부의 중요성과 그 독립운동을 재인식하여 재정지원과 정신적 지원을 재개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국민당을 비롯한 중국 각 단체와 관민의 재정지원과 편의 제공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임시 정부는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예컨대 중국 중앙군 사령관 장개석은 “중국군 30만 명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한 한국청년이 해내었다”고 윤봉길 특공작전 의거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중국군 사관학교 안에다 한인장교 훈련반을 설치해 해주어 여기서 양성된 한국청년들이 그 후 임시정부 광복군과 조선의용대 창설의 핵심세력이 되었다. 셋째, 윤봉길의 상해의거는 중국 상해를 침략하여 점령한 일본 상해 파견군 사령부의 총사령관 이하 군·정 수뇌의 이동체를 섬멸함으로써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두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넷째, 윤봉길의 상해의거의 성공은 일제의 잔혹무비한 식민지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던 한국민족의 독립정신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독립사상을 크게 고취했으며 전반적으로 국내외 한국민족의 독립운동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해설 13】 정답 : ①

해설 : 향약은 초기의 향약(중종-향약의 시작)과 후기(선조-전국적 보급)의 향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조광조 일파는 신분보다 나이를 존중하는 여씨향약을 소학과 함께 국문으로 번역하여 널리 보급하기 시작하고 관권보다 더 강력한 처벌권을 발동하여 호호들의 횡포를 막으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조광조가 기묘사화로 죽음으로써 폐지되고 말았다. 향약은 선조 대에 이황과 이이의 노력으로 전국적으로 보급되었는데 이때의 향약은 양반중심의 신분적 질서의 지배를 우위에 두고 지역실정에 맞게 재편성한 것이 특징이었다. 즉 당시의 향약은 신분제 계급사회에서 동요하는 농촌 사회를 양반층을 중심으로 통제하려는 성격이 강하였다.

【해설 14】 정답 : ③

해설 : 임진왜란 이후 승려들의 사회적 지위는 현저하게 향상되었는데 천민으로 전락했던 승려들이 국가의 위난을 맞아 이와 같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는 점은 당시의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효종 이후 또 다시 불교 억압책이 강화되어 현종 때에 양민의 출가가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승려들에게는 강제로 환속을 명령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당시 요역제의 원칙이었던 역민식(役民式)의 규정이 17세기 이후 사실상 폐지되었으며 요역제가 물납의 잡역제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농민에게 요역 동원이 힘들어진 정부에서는 승역(僧役)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평균 민(民)의 요역이 2일 정도인데 비하여 승(僧)의 요역은 약 17일까지 동원되어 가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 당시 승병들의 활약에 힘입어 불교사원은 17세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④ 17세기 후반을 거쳐 18세기 전반기에 들어서면서 불교사원은 임진왜란으로 불에 탄 전각을 복구하면서 새로운 가람구성을 하게 되었다. 이 시기가 되면 불국사 통도사 해인사 화엄사 금산사 은해사 등 이전의 유명 사찰들이 다시 그 면모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또 깊은 산간에 있던 소규모 사찰들이 활발하게 재건되기 시작하였다. 또 큰 강이나 해안에 인접한 사찰들이 신앙의 중심지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사찰건립에는 왕실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17세기 말에 세워진 전등사(傳燈寺) 같은 사찰은 왕실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으로 설립되어 사교의 보관장소로 활용되었다.

【해설 15】 정답 : ①

해설 : 향약과 사장은 향촌 양반들의 농민 통제수단이었다. 따라서 농민들의 피폐해진 생활여건에 대한 개선책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16】 정답 : ③

해설 : <경국대전>에 의하면 음서의 취재시기는 매년 1월이었고, 취재연령은 20세 이상 대상은 ① 공신이나 2품 이상의 자·손·사·제·질(원종공신은 자·손), ② 실직 3품 이상의 자·손, ③ 일찍이 이·조·병·조·도총부·삼사·부장·선전관을 거친 이의 손, 제수 관직 - 녹사 이상이었다. 조선시대의 음서는 과거제의 정립·보급과 함께 그 수혜대상이나 초직 등이 축소·하향되는 방향으로 규정되고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음서는 문과에 못지않은 비중을 가지고 조선시대에 과거와 함께 특권양반으로서의 가문과 지위를 누리고 계승시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해설 17】 정답 : ②

해설 : ㄱ - 근초고왕(346-375) : 마한병합(369년), 박사 고훈이 375년에 서기(書記) 저술(전하지 않기 때문에 추측) ㄴ - 소수림왕(371-384) : 태학설립·불교수용(372년), 율령반포(373년) ㄷ - 백제신라 결혼동맹(5C 동성왕과 소지마립간) ㄹ - 신라 우경시작(5C지증왕)

【해설 18】 정답 : ③

해설 : 태학은 고려와 고구려의 교육기관이다. 고구려에서는 372년(소수림왕) 전진의 제도를 본떠 국립학교로서 중앙에 설치하였는데, 이것이 한국역사상 학교교육의 시초가 된다. 상류계급의 자제들만이 입학할 수 있는 귀족학교였으며 경학·문학·무예

등을 가르쳤다. 고려시대에는 국자감의 한 분과로 인종 때 설치하였다. 대학(大學)이라고도 하며 정원은 300명으로, 문무관 5품 이상의 자손과 3품관의 증손에 한하여 입학할 자격을 주었다. 박사·조교 등 교관을 두어 역경, 시경, 서경, 삼례, 삼전춘추, 효경, 논어 등을 가르쳤으며 수업연한은 8년 반이었다.

【해설 19】 정답 : ④

해설 : 상자 안의 보기는 박제가의 <북학의>로서 청과의 통상강화를 역설한 것이다. 북학파 개혁 사상은 농업에만 치우친 이상 국가론에서 탈피하여 부국강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개화사상의 등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북학파의 사상이 형성된 배경으로는 조선 후기 사회의 상공업 발달과 청나라 문물의 수용, 그리고 서양 문물의 영향 등을 들 수 있다. 차관도입은 관련이 멀다.

【해설 20】 정답 : ③

해설 : 고려 후기에 토지 및 노비에 관한 행정을 정비하기 위해 설치하였던 특별기구로서 권문세족의 농장과 노비를 혁파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①, ②, ④는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해당된다.